

사상가(思想家)로서의 톨스토이

「만일에 단 한 번이라도, 아마 어릴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행복감을 느낀 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는 없다. 누구나 사람은 이웃을, 아버지들, 어머니를, 형제들, 악인을, 적을, 개를, 말을, 초목을 사랑하려고 하는 정열을 모르는 자는 없다.」 이리하며 「사랑(신)」 그것이야말로 톨스토이의 사상에 있어서의 「제1원리」다. 이 「사랑」을 근원으로 하여 그의 종교관, 도덕관은 물론 정치관, 예술관, 문명관, 교육관 이 모든 것이 유출된다. 그러면 그의 사상체계의 근저가 되는 「사랑」 그것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자기방기(自己放棄)와 봉사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그 근저에 개인적 행복의 방기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만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보편적 애정에 기인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즉 친척, 지기 또는 전연 모르는 사람에 대한 순진한 애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애정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고 동물아(動物我)와 이성적 의식과의 표면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 근저에 자기방기가 없는 사랑은 단지 동물적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사랑은, 그리고 사랑에 기초를 둔 선과 정의는 자기희생,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수 이외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므로 사랑에는 경쟁자도 없으며, 생

그것은 영원히 산 현실이므로 사랑은 휴식도 포만도 모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을 근거로 한 그의 종교관, 도덕관, 예술관, 교육관, 역사관, 문명관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종교는 애의 개선의 원칙의 학문이 아니면 안 된다. 윤리는 실제적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 미학은 윤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사랑과 배치되는 폭력과 강제와 형벌을 의미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자가 자기의 척도에 의하여 훈육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피교육자의 개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는 물질적 진보 여하를 기록하기보다도 도덕적 진전 여하를 따라서 도덕가의 생활과 행위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 그것이 물질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요, 한편 도덕적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명의 진보는 당연히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도덕, 정치, 경제, 예술, 학문, 과학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진보와 발달을 자랑하고 구가하는 현대사회는 이와 같은 사상체계를 가진 톨스토이의 안광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교통기관의 개선, 인쇄물의 보급, 가로의 와사등의 광명, 빈민 보호소의 증가, 또는 수목, 금조, 어류의 자연물에 대한 가공, 체육의 발달, 풍속의 개화 등일까? 인류는 일시에 그 존재의 다양의 측면에 있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시대에 있어서의 행복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의 일이다. 한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느 한 사람이 보는 것은 다만 예술의 진화요, 둘째 사람이 보는 것은 도덕의 진화다. 셋째 사람이 보는 것은 물질적 편리의 진화요, 넷째 사람에게서는 체육의 진화요, 다섯째 사람에게서는 사회적 시설의 진화요, 여섯째 사람에게서는 과학의 진화, 일곱째 사람에게서는 와사등과 방적의 진화다. 그리하여 인류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 궁(亘)하여 냉정히 관찰하는 자는 이 측면에 있어서의 진화는 언제나 인류생활의 판 측면에 있어서의 퇴보를 초치(超越)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있어서 그가 판 측면에 있어서의 퇴보라고 한 것은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애의 결핍, 즉 도덕적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요 자랑인 과학의 발달이 권력자나 자본가 계급을 더욱더 부강케 하는 것이요, 더욱 정교한 살인방법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일진대, 그것은 판 일면에 있어서 사랑의 질식과 선의 퇴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곳에 톨스토이가 자본주의 기구에 입각한 현대 서구문명, 즉 물질문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으며, 사상가로서의 그가 우리에게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며 새로운 규범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호흡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와의 사이에는 하등의 본질적 차이도 없다. 아니 당시에 맹아(萌芽)하고 있었으며, 또는 톨스토이를 그렇게도 괴롭게 한 모든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는 더욱더 그 단말마적 발악을 함부로 하고 있다. 물질의 주인이어야 할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화하였다. 그리하여 물질의 노예인 현대인에게 인격 완성의 이상도, 진리 탐구에 대한 열망도, 봉사에 대한 성의도, 행동에 대한 자신도 완전히 상실되고야 말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톨스토이는 벌써 50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1886)라는 저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제1.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 자기의 생활의 길이 이성이 지시하여 주는 진정한 길에서 여하히 멀리 격리되어 있더라도—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제2. 자기의 정당성, 타인에 대한 자기의 우월 또는 특수의 의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 있는 자로 인정할 것.

제3. 자기의 전 존재의 노력을 가지고, 자타의 생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연과 투쟁한다는 영원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인간의 법칙을 실행할 것.」

톨스토이의 사상체계에 대하여는 지나침과 오류를 발견할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애, 즉 선의 이상에 대한 열렬한 존숭, 인간의 부단의 완성에 대한 사명의 확신 앞에, 그리고 80의 노구를 이끌고 인도(人道)의 체험을 위한 순례의 길에 오른 그의 승엄한 인격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자는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언제나 산 사상가요, 따라서 영원히 인류의 사부인 것이며, 이상과 정신의 존엄에 대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열의를 상실하고, 자기희생과 봉사에 대한 사상이 결핍된 현대인에 대하여 더욱 그런 것이다.

《조광》, 창간호, 1935. 11. 1)